

# “지역 이야기 엮어낸 향토문화 연구 지속”

## ‘박선홍 광주학술상’ 제1회 수상자 김경수 박사

### 지난해 4월부터 본보에 ‘광주 땅 최초 이야기’ 연재 연역·귀납 통한 지리·역사 이해...기록활동 힘쓸 것

“제가 하고 있는 향토문화 연구가 온전히 제 성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들이 다리를 놔준 덕분이지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들이 갈고닦은 이 기록들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야 해요. 이 시대의 기록을 남기는 일은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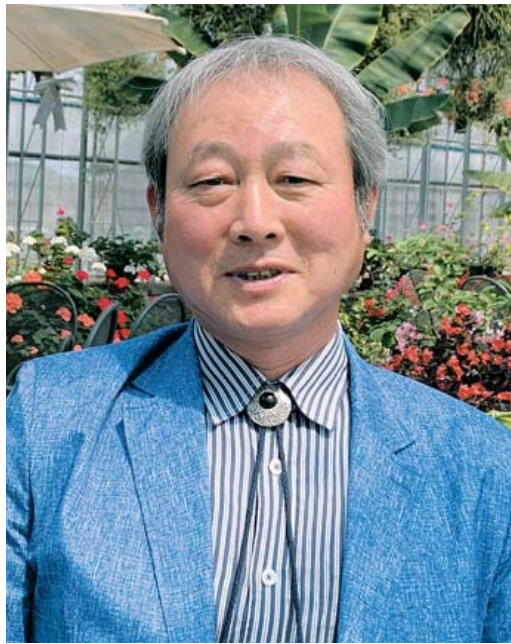
향토지리연구가 김경수 박사가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제1회 박선홍 광주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4월부터 본보에 ‘광주 땅 최초 이야기’를 주제로 매주 연재물을 기고하는 김 박사는 광주학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 박사는 “지난 40여년간 지리와 역사를 토대로 광주의 향토문화 연구와 기록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광주의 ‘최초’를 찾는 것은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과 관련된 역사학이 y좌표라면, x좌표는 지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곧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며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 지리학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지리는 삶의 결, 즉 일상생활의 결을 보여주려는 노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박사는 “현재 연재하고 있는 광주 최



초 이야기는 먼저 계통적으로 원리를 아는 연역 방법으로 풀이된 것이며 지역성에 기반한 귀납적 방법, 그 이후에는 y축과 만나는 x좌표의 공간에

‘광주 사람’으로 점을 찍는 것이다”며 “이는 지금껏 해왔던 연구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고, 전체적인 변화상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앞으로도 일상을 바탕으로 흠어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엮어내는 일에 몰두할 생각이다”며 “광주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현재서부터 시작해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박선홍 광주학술상’은 광주 향토사 연구가 고 박선홍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광주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한 공로가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김 박사는 1991년 발간한 ‘광주동연혁지’를 비롯해 ‘영산강 삼백오십리’(1995), ‘광주 땅 이야기’(2005년), ‘광주서창지리’(2016), ‘광주천 지리지’(2020) 등의 저서 집필, 광주매일신문 ‘광주 땅 최초 이야기’ 연재물 기고 등 지난 40여년 간 광주 일대를 살살이 돌아다니며 지리 연구와 지역 향토 연구에 천착해오고 있다. /최명진기자

## 강향옥 광주대 국제협력처 팀원 호남지역 대중국 교류 공로 표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국제협력처 강향옥 팀원이 ‘중한 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에서 중한우호상 표창을 수상했다.

강향옥 팀원은 광주대 대중국 교류 업무를 담당하며 중한 우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이 주최로 최근 열린 리셉션에는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와 김동진 광주대 총장을 비롯해 영사 관할 지역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자, 대학교, 언론, 중국 교민 단체, 중국 기업, 유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호남 대중국 교류 공로자들에게 대한 ‘중한우호상’ 표창식과 주한중국대사의 ‘중한 우호인사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임재만기자



## 목포 삼학동주민자치위, 기부금 전달

목포시 삼학동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삼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삼학동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삼학동지역사회복지회 폐지됨에 따라 자발적 활동으로 조성된 금액 일부를 삼학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하자는 위원들의 뜻을 모아 협의체에 기부금 전달을 추진했다.

김종열 삼학동주민자치위원장은 “기부금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주민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옥 삼학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뜻 깊은 나눔을 실천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 동신대, 정년퇴직 교수 송공패 수여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최근 2022학년도 제2학기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오는 31일 정년퇴직하는 김홍식(생활체육학과), 차두욱(뮤지컬실용음악학과), 이학재·김운경(정보통신공학과), 박용필(보건행정학과), 서남숙(간호학과), 강성인(한의학) 교수에 대한 송공패 수여식을 가졌다. /임재만기자



## 광양경찰, 통합관제센터 요원에 감사장

광양경찰서는 최근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광양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관제요원은 지난 22일 새벽 남성 4명이 오토바이를 훔쳐타고 광양읍 일대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한 뒤 광양경찰서 112상황실로 신고했다.

이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피의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읍내지구대 경찰관들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하이테크도둑과 주변에 있던 피의자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광양경찰은 도주한 3명의 인적사항도 확인해 현재 조사 중이다.

정재봉 광양경찰서장은 “지자체와 적극 공조해 보다 안전한 사회안정망을 구축,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철기자

## 부음

●오순임씨 별세, 김영록(전남지사)씨 모친상=발인 9월1일(목) 오전 10시 목포효사장장례식장 101호실(061-242-7000).



##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재난구호 종합훈련’ 실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최근 ‘2022년 재난구호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훈련은 대형 아파트에서 원인 미상 가스폭발로 화재 및 건물 붕괴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재난유형에 대한 훈련을 통해 대응력 제고와 함께 대규모 이재민 집단 구호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역량 강화 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기반훈련은 재난상황을 부여하고 상황적

수 전파 및 보고, 상황 판단 회의를 실시,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설치·운영, 재난대응 합동 구호 및 복구 활동을 실시했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마지막까지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하는 적십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전문성과 신속한 구호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을 통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기자



## 동구-더불어민주당, 민선 8기 첫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광주 동구는 29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동남을 지역위원회와 민선 8기 첫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을 논의하며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이병훈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주요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5·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 ▲산수1·지일동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 ▲무등산과 광주읍성 중심 남도 달밭 예술 여행지 육성 등 총 5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여러 현안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살펴주신 불분과 애로사항을 먼저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입력 청장님을 비롯한 시 구의원, 공직자가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4년 민선 7기 동안 동구 변화에 밑그림을 그렸다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4년은 그동안 일궈낸 변화를 완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당정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구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 조선대 아시아e스포츠지원센터-광주시교육청 협약

조선대학교 아시아e스포츠산업지원센터(센터장 김현우)와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최근 ‘중·고교 Challengers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선대학교 김현우 아시아e스포츠산업지원센터장과 광주시교육청 이정선 교육감이 참석했으며, 대학 및 기관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세부 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 ▲중·고교 Challengers e스포츠 클럽 운영 및 대회 일정 공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공유 ▲협력 활동 관련 콘텐츠 생산 등이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아시아e스포츠산업지원센터는 조선대가 운영을 맡아 ‘아시아 e스포츠 허브 도시, 광



주’를 목표로 시설, 교육 등의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양 기관은 Challengers e스포츠 대회, Challengers 생태계 구축과 e스포츠 산업 관련 판로 개척, e스포츠 산업의 성장성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류를 증진할 계획이다. /임재만기자



## 코로나 극복 ‘한가위 상생 한마당’ 내달 4-8일 개최

### 빛고을백세시민포럼-광주지체장애인협서구지회-김대중컨벤션센터 협약

사단법인 빛고을백세시민포럼(이사장 이광중)은 지난 26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지회장 이연주),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김상목)와 ‘한가위 상생 한마당’ 행사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장애인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가위 상생 한마당’은 오는 9월4일부터 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특산물 열린 장터와 한가위 민속놀이 체험, 우리 옷 바로

알리기 세대 공감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한가위 상생 한마당’ 행사관련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장소와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고, 지체장애인협 서구지회는 행사장 조성·운영 및 참가업체·참관객 모집 등을, 빛고을백세시민포럼은 후원사·참관객 모집, 프로그램진행 등을 맡아 추진한다.

행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체장애인고아 어린이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특수목적 사업 비로 기부될 예정이다. /김다인기자



## 담양군-희망을나누는사람들 ‘나눔 연결’ 협약

담양군은 29일 “최근 (세희)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군정 대회의실에서 ‘희망나눔연결운동 업무협약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세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담양군에 향후 2년간 저소득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매달 5만원의 장학금과 아동 4명에게 컴퓨터 지원, 담양군복지재단에는 2억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총 2억2천880만원 상당을 후원기로 했다. 2007년 설립된 (세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여러

운 가정환경으로 꿈과 희망을 펼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을 돕는 대표적인 후원 기관으로, 장학 사업을 비롯해 물품지원사업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협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담양군에서도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올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

## 나경필 변영영어조합법인 대표, 찰보리떡 기탁

영광 변영영어조합법인 나경필 대표가 영광군에 800만원 상당의 찰보리떡 400박스를 기탁했다.

전달식은 강종만 영광군수, 나경필 변영영어조합법인 대표, 김선영 영광읍 이장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나경필 대표는 “2022년부터 영광읍사무소 나눔냉장고에 찰보리떡을 기부해 왔는데 추석을 맞아 지역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찰보리떡을 기탁했다”며 “지역 발전과 기부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종만 군수는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찰보리떡을 기탁하는 나눔 실천의 모습을 보니 아름다운 마음이 더욱 빛나는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나 대표의 열정이 확산됐으면 분이 이웃



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활발하게 베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필 대표는 2010년 영광읍 우평리에 변영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모시떡을 포함해 꽃게, 새우 등 수산물을 홀소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 시장 진출에도 노력하는 등 역동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영광=김동규기자